

# 깨끗한 環境과 보다 안전한 原子力發電



安秉華

(大會長·韓國原子力産業會議 會長)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第6回 韓國原子力産業會議 및 原子力學會의 年次大會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연차대회는 한국원자력계가 원자력의 기술향상과 원자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매년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를 모시고 원자력기술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여러가지 현안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마련하는 광장으로서 1986년 이후 올해로 여섯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은 대회주제를 ‘깨끗한 環境과 보다 안전한 原子力發電’으로 정하였고 오늘부터 2일간의 예정으로 진지하고도 폭넓은 토론이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금년은 에너지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걸프전쟁의 직후에 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우리나라 에너지문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계로서는 예년과는 다른 뜻깊은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脫油政策과 電源의 多元化政策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70년대까지만해도 전기생산의 80%를 석유에 의존하던 것이 현재는 20% 정도로 줄어들었고, 원자력발전에 의한 전력공급의 안정화로 이번 걸프전쟁과 같은 국제적 자원위기속에서도 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결과를 놓고 볼때, 전력계와 원자력계의 선배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원자력발전의 개발을 추진해온데 대하여 오늘 이자리에 모이신 원자력계인사 여러분과 더불어 다가올 2천년대의 좌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접근해가는 역사적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자 합니다.

원자력발전은 전체발전량의 절반에 가까운 4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중인 靈光 3,4호기가 1995년과 '96년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며, 금년 7월에 착공되는 月城 2호기가 '97년도에 완공되고, 蔚珍 3,4호기가 '92년에 착공되어 '98년과 '99년에 각각 준공되면 21세기 원년에는 총14기, 1,231만kW의 원자력발전설비를 가동하게 될 것입니다.

발전원가면에서도 1990년도의 실적을 보면, 중유가 37원88전, 유연탄이 25원9전인데 비하여 원자력은 23원75전의 저렴한 가격으로서 자원시장여건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한국의 에너지 소비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9년의 에너지 소비실적은 석유로 환산하여 총 8천백만7천톤으로서 그 94%를 수입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립도가 큰 원자력에너지의 개발이용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더욱 최근에 이르러 지구환경의 오염과 생태계파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 유황산화물(So) 등에 의한 大氣汚染, 溫室效果 및 산성비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서도 원자력에너지의 증대가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연차대회의 주제를 “깨끗한 環境과 보다 安全한 原子力發電을 위하여”라고 정한 것은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대하여 다함께 공헌하고자하는 원자력계의 의지표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은 그동안 전력의 안정적공급 뿐 아니라 환경보존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오늘의 현실은 그 공헌도에 상응할 만큼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시점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보다 냉철한 자성과 함께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와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하루빨리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따른 합당한 개선책을 세우는 일이 시급한 것입니다.

그것은 안정성의 확보문제를 비롯하여 기술자립과 지역협력 및 국민홍보의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과제의 해결에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서로 뭉쳐 정진해 나갈 때 국민적 이해기반도 더욱 단단히 다져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원자력인들의 분발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21세기에 우리 원자력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클 것이란 점을 명심하여 서로의 지혜와 힘을 모아 새로운 에너지 시대에 대처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2일간 계속되는 第6回 年次大會가 우리의 당면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성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특히 외국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간을 통하여 한국의 원자력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폭넓은 충고와 조언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